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20. 10. 28.(수) 총 6매(본문4, 참고2)		
담당 부서 디지털 도로팀	담당 자 • 팀장 이성민, 사무관 장유진 • ☎ (044) 201-4130, 3928			
보 도 일 시		2020년 10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2026년 교통올림픽 ‘ITS 세계총회’ 강릉 유치 본격 추진

- 국토부, 29일 9개 아태 지능형교통체계(ITS) 이사국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

- 한국판 뉴딜·미래강릉 ITS 청사진 홍보에 적극 나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9일 “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”를 개최하여 국내 후보지인 강릉시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.

○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, 미주,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 교통체계(ITS)*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.

* 지능형교통체계(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 : 전자, 정보, 통신,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에 접목시켜 신속, 안전,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

○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‘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 평가위원회’에서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강릉시를 최종 선정하고 강원도, 강릉시, 한국도로공사,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○ 한국에서는 ‘제5회 서울 ITS 세계총회’(1998년)와 ‘제17회 부산 ITS 세계총회’(2010년)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, 한국 외 이사국에서는 대만이 수도 타이페이를 유치 후보지로 신청하여 강릉과 타이

페이 이파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.

- “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”에는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참석하고, 국외에서는 유치도시 선정 투표권을 보유한 아·태 이사회 이사*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* 중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호주, 싱가포르, 홍콩, 대만, 한국 참여

- 세미나에 참석한 이사국 대표들은 각국의 ITS 현황 및 코로나-19 교통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,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이 상생과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.

- (국토부)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교통 분야의 K-방역사례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‘SOC 디지털화’와 국내 ITS 정책을 소개하였고,

< 대중교통 방역사례 >

Preventive Measures against Epidemics in Seoul

	Bus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isinfection for entire(4,081) bus stations once a week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hairs, digital devices, etc. • Disinfection for buses 4~6 times in a day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and straps, chairs, safety bars, etc. • Avoid commute time for disinfection(Implement disinfection after 10 a.m. & 8 p.m.)
	Taxi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Distribute posters for epidemics prevention behavior to taxi companies • Distribute masks for taxi drivers • Distribute individual disinfection equipment for each taxi
	Public Bike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eriodical disinfection for entire(1,540) public bike stations • Furnish every bike station with hand sanitizer • Disinfection for every bike(especially for handle and LCD display)

* Source: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

< 한국판 뉴딜정책 소개 >

Overview of Korean New Deal Program

“Paradigm shift to leap forward into a pace-setting economic model”
From a chasing economy to a leading low-carbon economy with an inclusive society

- Strengthen D.N.A ecosystem
- Digitalization of education infra
- Promotion of un-tact industry
- **SOC Digitalization**
- Invest 13.1B USD / Create 193K jobs until 2025
- Invest 3.4B USD for ITS & C-ITS
- Green convergence of urban & space & living infra
- Expansion of Low-carbon & dispersion energy
- Green industry innovation

Invest 160 trillion KRW* until 2025
* About 133 billion USD



<Investment by program> (Trillion KRW) <Job creation by program> (10,000 Jobs)

- (강릉시)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협력시스템(C-ITS) 및 ITS를 통한 미래 강릉의 ITS 청사진을 제시하였다.

< 강릉시 소개 >



< 강릉 ITS 추진전략 >



□ 강릉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경험과 우수한 관광자원, 청정지역(코로나-19 전국 최저 수준)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제행사 유치도시로의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선보였다.

○ 특히, 강릉시는 ‘2022 세계합창올림픽’, ‘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’ 유치가 확정되어, ‘2026 ITS 세계총회’까지 유치하게 되면, 2년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개회사에서 “오늘 아·태 ITS 이사국과 함께 한 웨비나를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코로나-19와 지속가능한 ITS 미래를 논의하고, 호혜의 동반성장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특별히,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깃든 도시 강릉의 잠재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”을 요청하였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아태 이사국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'21년 호주(4월, 브리즈번) ITS 아태 총회, ITS 아태 사무국 현장 답사 및 홍보 활동(5월)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팀 장유진 사무관(☎ 044-201-39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아태지역 BOD 참석 현황

국 가	사 진	성 명	주요경력	참석 여부
중국		Xiaojing Wang	- 現 ITS 중국 부대표 - 現 ITS 연구소, 교통부 수석 엔지니어(국장급) - 중국 국가 ITS센터 설립자	참석
인도네시아		Noni S.A. Purnomo (or Elly Sinaga)	- 現 ITS 인도네시아 대표 - 現 Blue Bird Group 이사 - Blue Bird 그룹을 설립한 Purnomo 가문 출신	참석
말레이시아		Siew Mun Leong	- 現 ITS 말레이시아 대표 - 現 말레이시아 ISO/TC204 위원장 - 쿠알라룸푸르市 도시교통부 35년 근속 공무원	참석
태국		Sorawit Narupiti	- 現 ITS 태국 대표 - 現 출라롱콘대학교 부교수 - 20년 이상 ITS 분야의 R&D 수행	참석
호주		Susan Harris	- 現 ITS 호주 대표 - 물류분야 컨설턴트 활동('03~'11)	참석
		Brian Negus	- 現 호주 세계총회 BoD - 現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이사 - 40년간 정부 및 민간 교통 분야에 재직	
싱가포르		Saurav Bhattacharyya	- 現 Quantum Inventions 대표('17~현재) - Viometrix 국장 - 난양기술대(NTU) Project Officer	참석
홍콩		Charles So	- ITS 홍콩 대표 - 現 AECOM 대표이사 - Delcan 수석 엔지니어	참석
대만		Jason Chang	- 現 대만대학교 교수 - 現 난양기술대학 첨단대중교통 연구센터 소장 - 20년간 타이페이市 고문 활동(교통분야)	참석

참고 2

2026년 ITS 세계총회 추진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**한국형 ITS 홍보**와 첨단 교통기술에 대한 **국제협력의 場**을 마련하고, 우리기업의 **해외진출 지원**을 위한 **ITS 세계총회 유치 추진**
 - * 지난 '18년 '2022년 서울 ITS 세계총회 유치'를 추진하였으나, 중국(쑤저우)이 선정
현재 중국(쑤저우) 세계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
- **(효과)** 기술시연 등을 통한 국내 ITS 기술의 **국제적 인지도 확산**, 대규모 외국인 참석을 통한 **지역경제 활성화** 등 국가 경쟁력 강화
 - * '10년 부산 ITS 세계총회 : 생산유발효과 1,195억원, 부가가치유발효과 493억

□ 추진 경과

- '19. 12. ~ '20. 2. : 유치후보도시 공모 및 강릉 선정
- '20. 2. 28. : '25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의향서 제출
 - * 한국(강릉), 대만(타이페이) 2곳에서 유치의향서 제출
- '20. 3. 27. : '25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위원회 키오프회의
- '20. 6. 8. : 세계총회 BOD 화상회의 개최
-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LA ITS 세계총회 전면취소 및 '25년 아태 지역 ITS 세계총회 '26년으로 연기 통보
 - * '20년 취소 → '21년 함부르크(유럽) → '22년 미주 → '23년 쑤저우(아시아) → '24년 유럽 → '25년 미주 → '26년 아시아로 순차 개최

□ 향후 계획

- '21. 4 : 호주(브리즈번) ITS 아태총회 참가 및 홍보
- '21. 5~6월중 : ITS 사무국 현장 실사
- '21. 10 : 독일(함부르크) ITS 세계총회에서 최종 개최지 선정